

# '지역 청년들의 꿈의 무대'

취·창업부터  
문화·복지까지  
원스톱으로

익산시가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청년도시로 도약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 허브 기능을 갖춘 '청년시청'을 건립한다. 취·창업부터 문화·복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청년시청은 여러 사회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의 숨통을 트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청년시청을 중심으로 삶과 일, 여가가 가능한 인프라를 도시 전반에 구축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맞춤형 정주 여건을 제공한다. 청년들의 일터, 삶터, 놀이터 역할을 할 공간 창출로 지역 청년들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 청년 인재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거듭난다는 포부다.



청년시청 착공식



청년, 익산을 말하다 토크 콘서트

민원의 사업화 자금을 제공하고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자금과 임대료 등 최대 2,600만원을 사업에 1년 이상 유지한 청년 창업자에 임대료를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 안정적인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 ▲청년시청 중심 맞춤형 정책으로 매력적인 '청년 도시' 조성

시는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일할 수 있는 매력적인 청년 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건립될 청년시청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주거, 복지까지 책임지는 최대 규모의 맞춤형 정책을 제공한다. 올해는 이미 8개 분야 14개 사업에 총 55억1,000만원(도비 포함)을 투입하기로 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청춘에서 다양한 역량강화·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거점 대학과 연계한 각종 취업 프로그램들을 지원한다.

일하는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급도 계속된다.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근로청년수당은 지난해 98%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기도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결혼자금과 주거비, 창업자금 등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 수단으로 청년자립형성 통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청년취업드림카드' 등을 제공하고 청년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정현을 시장은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립기반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 청년시청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청년들의 꿈이 실현된다... '익산청년시청' 착공

익산시는 청년들의 꿈의 무대가 될 청년시청을 중앙동 옛 하나비호텔에 건립한다. 그 첫 단계로 20일 정현을 시장을 포함한 지역 청년단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곳은 기존 익산청년센터 '청숲'의 기능을 확대해 취·창업, 문화, 복지 관련 각종 지원사업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총 4층 규모로 청년 문화·취업·창업·사무공간 등으로 조성된다. 1층은 코로나 불투명과 취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오락 시설과 북카페 등이, 2층은 스타트업과 취업 컨설팅을 위한 상담실 공유주방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 창업팀 입주 공간인 창업 보육실과 1인 크리에이터 활동을 위한 스마트 스튜디오, 사무공간 명에 시장실 등이 들어선다.

시는 청년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후 청년시청 기능을 확장하는 등 청년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 ▲청년시청 '창업인큐베이팅'으로 청년들이 모여든다!

익산시는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인 일자리 문제 해결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용 환



2021 익산시 청년 취업 박람회

경 제공을 위해 창업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시청에 '창업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한다. 이곳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이 입주해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창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탄탄한 창업 기반과 함께 청년시청 창업인큐베이팅 공간은 지역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인착시킬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올해 5개 분야 9개 사업에 총 27억5,400만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청년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창업 초기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총 70개 팀, 홍보비와 임대료 등 사업 안정화를 위한 자금 지원 32개 팀 등 총 102개 팀을 선발해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위드 로컬(With Local) 청년 기술창업 지원사업'은 SK E&S(전북에너지서비스), 창업 전문 교육기관인 언더독스 가 참여해 팀당 최대 4천

익산청년센터 '청숲' 기능 확대  
취창업·문화·복지 관련  
청년 필요 종합서비스 제공

창업인큐베이팅 공간 조성해  
예비 창업자 정착토록 지원

시, 청년시청 중심으로  
최대 규모 맞춤형 정책 제공  
올해 14개 사업에 55여억 투입



높을 **고**고창

당신이 서있는 곳  
당신이 만나는 사람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이 치유가 되는  
여기는, 고창입니다